**캐릭터**

**아트로포스**

운명의 세 여신 중 셋째 여신. 운명이 있음을 믿고, 그 운명이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줄 것이라 믿는 인간들의 염원에 의해 태어난 신이다. 클로토가 운명의 실을 짜면, 그 운명의 실에 인간의 죽음의 시기와 장소 등을 정한 뒤, 실을 잘라내는 일을 하는, 인간의 운명의 끝을 정하는 신이다.

평화의 신인 아이시오스와 연인 관계였으며, 아이시오스가 소멸한 뒤 인간들이 평화를 믿지 않아 아이시오스를 소멸하게 만들었다며 인간들을 증오하게 된다.

인간계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해 대륙을 통일하게 되고, 전쟁으로 결국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. 아트로포스는 인간들은 평화로울 자격이 없다며 분노하지만, 아트로포스는 인간을 관장하고 보살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진 신이었기 때문에, 복수조차 할 수 없었다.

그 때, 자신을 창조주라 칭하는 아디오스가 아트로포스에게 목소리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, 더이상 인간이 아닌 신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한다. 아트로포스는 자신을 창조주라고 칭하는 아디오스의 말을 믿고, 아디오스에게 힘을 얻어 인간의 미래를 지배해 인간들을 신의 아래에 두어 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, 복수를 꿈꾼다.